

강임준 군산시장, 공약 '순항'

민선7기 2주년, 5대분야 169개 사업 집중 점검... 이행률 69.7%

취임 2주년을 맞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이행률이 69.7%로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7~8일 양일에 걸쳐 시장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5대 분야 169개 공약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개별사업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소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해당 국·소장 및 공약사업 추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위주로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전체 169개 공약사업 중 이행완료된 사업은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경로당 순환주차의제 도입 영유아 상해보험 확대 지원, 우범지대 음성인식 CCTV 설치 등 55개 사업이며, 80%이상 이행사업이 23개, 50%이상 이행된 사업이 54개, 50%미만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평균 이행률은 69.7%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 사업마다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형식적인 공약이행률 제고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질

적인 사업내용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행 완료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행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목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는 원활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등 2021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약 이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추진하는 스쿨팜(학교텃밭)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지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스쿨팜' 코로나 힐링공간으로 인기

익산시, 어양초 등 12곳 지원

익산시가 추진하는 스쿨팜(학교텃밭)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지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스쿨팜 지원사업은 익산시가 교육청, 초등학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시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4월부터 학교 안에 노지 텃밭을 조성하고 상추, 토마토,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며 텃밭 상자를 이용해 비 수확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석암초, 복일초 등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학생들의 호응과 교육 효과가 높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올해에는 12개 초등학교에 8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 중이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별로 노지 텃밭에 심어진 작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여름철 병충해에 대한 생육단계별 물관리, 웃거름 주는 시기,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법을 지도하고 있다.

스쿨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직접 작물을 재배·수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답답함과 피로감을 털어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특별한 기부 챌린지, '마르지 않는 쌀통' 나눔식

군산대학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기부 챌린지 '마르지 않는 쌀통' 나눔식을 7일 대학본부에서 가졌다.

이 기부챌린지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링크플러스사업단)이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눔 이벤트이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부 챌린지를 '마르지 않는 쌀통'을 진행하고 있다. 챌린지를 통한 기부금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쌀을 구입해서,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이를 전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산대학교는 이날 나눔식을 시작으로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모금된 성금 중 일부로 2kg 단위의 쌀을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하여 흥남동, 신풍동, 오식도동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에 대용량 쌀통을 설치한다. 1주일 단위로 해당 지역 내 4~5곳에 마르지 않는 쌀통(대용량 수납함)을 설치하고, 2kg들이 쌀 30포대씩을 배부하여



군산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기부 챌린지 '마르지 않는 쌀통' 나눔식을 7일 대학본부에서 가졌다.

필요한 주민이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부챌린지에는 80여 명이 참여했고, 430만원에 달하는 성금이 모금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서동축제 온택트 전환·국화축제 취소

익산시가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던 하반기로 연기했던 서동축제를 온택트(On-tact)축제로 전환하고, 10월 예정이던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익산시는 7일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가을철 2차 대유행 예고로 불안해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서동축제의 기존 대면형

프로그램과 교류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대신 '빛으로 즐기는 서동'을 주제로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를 담은 대규모 유등 전시를 길러컨텐츠로 선보이며, 온라인 주제공연과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준비한다.

이에 따라 2020 서동축제는 서동 선화의 이야기를 담은 백제 유등 제작 기간을 감안하여 11월 ~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축제장에 설치되는 유

등은 2021년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14일까지 전시된다.

한편 오는 10월말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던 제17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도 취소하고 지금까지 재배한 국화 작품은 주요 관광지에 분산 전시한다.

지난 16년 동안 해를 거르지 않고 개최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다양한 국화조형물과 수준 높은 국화작품을 선보이며 7만명이 넘는 관람객과 외지 방문객 비율이 67%가 넘는 전국 최대 국화축제로 호평을 받아 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민체전 내년 익산서 열린다

장애인체전 등... 날짜는 미정

전북도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58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가 2021년 5월 스포츠 중심도시 익산에서 각 3일간 개최된다.

제58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약 1만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해 주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개·폐회식 포함 37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는 약 27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하여 개·폐회식을 포함 25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0 전국 생활체육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향후 추이 또한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참가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됐다.

이로 인해 2018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겼지만, 내

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로 익산의 스포츠 열기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시는 양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2018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2021년 도민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 현재 미정이며 전북도와 도 체육회의 공식 결정에 따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20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취소돼 아쉽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온라인 예매 전환 시설 익산시 지원사업 각광

익산시가 추진하는 온라인 예매 전환 지원 사업이 종교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종교행사로 전파되는것을 막기 위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협업하여 재정이 취약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예매전환 지원 사업에 돌입했다.

이달 8일과 15일 실시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은 종교시설 20개소가 신청해 접수 마감했고, 22일 실시하는 교육도 신청이 쇄하고 있다.

시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내 TV스튜디오에서 주말 예배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행사 소모임을 중단해줄 것을 종교계에 지속 요청해왔다.

이에 종교 단체들도 감염증 발생 초기에는 예배나 법회, 미사 등을 중지하며 적극 협조해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양측 모두 곤란을 겪는 실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불법조업 단속

군산시가 7월 한달동안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2020년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6.15~7.31)에 따라 7월 한 달간 본격적으로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제정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량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은 꽃게 금어기(6.21~8.20), 조업금지기간(개량안강망 7.01~7.03, 근해형망 6.01~07.31), 연안선망 세목망금지(7.01~7.31) 등 본격적인 밀치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한 달간 불법조업 단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